

『고담낭전(古談囊傳)』의 계통과 서사적 특성에 대한 연구

유 춘 동*

국문초록

이 글은 『고담낭전(古談囊傳)』의 다양한 이본(異本)을 검토하여 이 소설의 계통(系統)을 밝히고, 이본의 각 계통에서 확인한 대표본을 통해서 이 작품이 지향하는 서사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고담낭전』은 소년 ‘담낭(談囊)’이 어른인 ‘태수(太守)’와 ‘지혜 겨루기’ 문답(問答)을 나누다가 소년이 승리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독특한 고소설로 알려져 있다. 『공부자동자문답(公夫子童子問答)』과도 유사한 이 소설은 연구자들에게 조선후기 고소설사(古小說史)에서 매우 이례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아, 작품의 형성 과정, 구조와 의미, 문체적 특징 등을 구명(究明)하려는 연구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두 종의 이본만을 검토하여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 소설의 실상을 파악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확인된 『고담낭전』은 세책본과 일반 필사본의 형태로 대략 15여 종이 존재한다. 이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고담낭전』은 세 계통으로 나누어지고, 계통에 따라서 작품의 서사적 특성 또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고담낭전』 이본 전체를 살펴보고, 이본이 세 계통으로 구분되는 근거를 제시해 보았다.

그동안 연구자들이 『고담낭전』에 관심을 가진 부분은 이 작품의 연원(淵源)과 형성 과정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화의 소설화 과정’, ‘민담의 수용과 변용’, ‘문답 양식의 차용’과 연관시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 소설을 보면 세책본으로 유통되던 것, 『공부자동자문답』처럼 다른 작품과 합쳐진 것, 독특한 내용을 지닌 것도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고담낭전』은 이와 연계시켜야 작품의 연원과 형성 과정이 밝혀질 수 있다.

이 소설의 핵심은 ‘역대(歷代) 세상 만물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고, 성제(聖帝), 명황(名皇), 효자(孝子), 충신(忠臣) 등의 고사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대중들에게 익숙한 소설을 통해서 전달하려 했다. 따라서 『고담낭전』의 성격과 의미, 서사적 특성은 이 문제와도 연관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고담낭전』의 존재에 주목해서, 『고담낭전』의 계통, 이본 계통의 선본을 검토하여 각 이본이 지닌 서사적 지향과 의미, 이 소설이 지닌 문학사적 위상 등을 논했다.

[주제어] 고담낭전, 담낭전, 이본군의 계통, 세책본, 연원, 서사적 특성, 공부자동자문답

* 선문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 sechaek@hanmail.net

— 목 차 —

- | | |
|-----------------------|--------------------------|
| I. 서 론 | Ⅲ. 『고담낭전』 계통별 이본의 서사적 특성 |
| Ⅱ. 『고담낭전』의 이본(異本)과 계통 | Ⅳ. 결 론 |

I. 서 론

이 글은 『고담낭전(古談囊傳)』의 다양한 이본(異本)을 검토하여¹⁾ 이 소설의 계통(系統)을 밝히고, 각 계통에서 확인한 대표본을 통해서 이 작품이 지향하는 서사적(敘事的)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고담낭전』은 소년 ‘담낭(談囊)’이 어른인 ‘태수(太守)’와 ‘지혜 겨루기’ 문답(問答)을 나누다가 소년이 승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독특한 고소설로 알려져 있다. 『공부자동자문답(公夫子童子問答)』과도 유사한 이 소설은²⁾ 연구자들에게 조선후기 고소설사(古小說史)에서 매우 이례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아, 작품의 형성 과정, 구조와 의미, 문체적 특징 등을 구명(究明)하려는 연구로 이어졌다.³⁾

그러나 기존 논의는 두 종의 『고담낭전』만을 대상으로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이 소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고담낭전』은 세책본과 일반 필사본의 형태로 대략 15여 종이 있다.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 이 소설은 단일 계통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계통으로 존재하고, 계통에 따라 작품의 서사적 특징에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의 온당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고담낭전』 이본의 계통별 특성, 구분되는 특징과 내용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고담낭전』 연구는 이 소설의 연원(淵源), 창작 배경을 설명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화의 소설화 과정’, ‘민담의 수용과 변용’, ‘문답 양식의 차용’과 연계시켜 모색해왔다. 그러나 이 소설을 보면 세책본으로 유통되던 것, 『공부자동자문답』처럼 다른 작품과 합쳐진 것, 독특한 내용을 지닌 것도 있다. 『고담낭전』은 이러한 이본, 유통의 문제와 맞물리고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작품이 변모되었고 당대 독자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고담낭전』이 지닌 전반적인 의문의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고담낭전』의 이본을 검토하여 이 소설의 계통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각 계통의 대표 이본을 중심으로 작품의 유통, 서사적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고담낭전(古談囊傳)’은 고담낭전, 고담낭전이라, 담낭전, 담화서 등으로 제명이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고담낭전(古談囊傳)’으로 기재한 것이 선본(先本/善本)이라 판단하여 이를 대표 제명으로 사용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문에서 다룬다.

2) 윤주필, 「〈공자동자문답〉의 동아시아적 전개 비교론」,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연구학회, 2014; 엄태웅, 「〈공자동자문답〉 계열의 파생작 〈대성훈몽전〉」, 『고전과 해석』 25,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3) 이문호, 『담낭전 연구』, 이화여대 국문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장인수, 『담낭전 연구』, 한국 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조도현, 「담낭전의 문학적 특질과 의의」, 『인문학연구』 96, 충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14.

Ⅱ. 『고담낭전』의 이본(異本)과 계통

『고담낭전』의 이본은 조희웅의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기관이나 개인소장자가 소장하고 있는 8종이 학계에 알려졌다.⁴⁾ 그러나 『고담낭전』은 『공부자동자문답』에 합철되어 있어서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 새로 발굴된 자료들도 있다. 따라서 이를 포함시켜 『고담낭전』의 이본 현황을 재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1. 『고담낭전』의 이본과 서지(書誌)

번호	형태	권수제(卷首題)	소장처/소장자/출처	장수(張數)	필사기/필사시기
1	한글 일반필사본	고담낭전	김광순 전집(69)	23장	세직계수(1893) 정월이십육일
2	한글 일반필사본	담낭전	단국대	10장	大正乙丑(1925)孟秋 (공부자동자문답과 합철)
3	한글 일반필사본	담낭전	단국대	18장	미상 (향산별곡과 합철)
4	한글 일반필사본	고담낭전나라	단국대	12장	기미년(1919)이월순칠일 병자(1936)이월십육일가이(加衣)
5	한글 일반필사본	담화서라	단국대	10장	미상 丁亥丁月日造 첨가
6	한글 일반필사본	古談囊傳	단국대	1장	歲在庚申(1920)臘月 (당태종전과 합철)
7	한글 일반필사본	담낭던	이화여대	25장	계희(1923)남월념일
8	한글 일반필사본	고담낭전	금요고서방	미상	제목과 내용 일부만 확인
9	한글 일반필사본	없음	국립중앙도서관	7장	丙辰年(1904) 臘月二十日(공자임훈교언행록합철)
10	한글 세책본	고담낭전	개인소장	18장	을미(1895) 원월이십오일살임동[산림동]필서
11	한글 일반필사본	고담낭전	개인소장	10장	미상
12	한글 일반필사본	담낭전	사재동 소장	13장	미상 (금향정기와 합철)

4)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상), 박이정, 2006;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 사전』 11, 지만지, 2017. 조희웅은 북한에서 나온 해제본까지 합쳐서 모두 9종을 소개했다. 이 중에서 북한본은 이화여대 소장본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희웅이 소개한 것은 8종으로 보아야 한다.

번호	형태	권수제(卷首題)	소장처/소장자/출처	장수(張數)	필사기/필사시기
13	한글 일반필사본	고담낭전	코베이	미상	제목과 내용 일부만 확인
14	한글 일반필사본	고담낭전	여태명 소장	19장	경인추칠월
15	한글 일반필사본	미상	박재연 소장	28장	미상 (허생전과 합철)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고담낭전』의 이본은 모두 15종이다. 이 중에서 연구자들이 검토한 것은 [2]와 [7] 2종뿐이다. 따라서 두 종을 포함해서 전체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은 김광순 소장본으로, 지질이나 필사기를 볼 때 1893년 무렵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2]는 김동옥 구장본(舊藏本)으로, 『공부자동자문답』과 합철되어 있다. 지질이나 필사기, 책에 수록된 별도의 작품에서 일제 강점기 유입된 신문물(新文物)에 대한 내용을 필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1925년에 필사한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⁵⁾ [3]은 김동옥 구장본으로, 『향산별곡』과 합철되어 있다. 정확한 필사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지질 등을 고려해 볼 때 1910년 이후에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4]는 김동옥 구장본으로, 표제는 ‘고담낭전’, 내제는 ‘고담낭전이라’로 차이가 있다. 필사기를 보면 1919년에 처음 필사된 뒤에 1936년에는 표지를 개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는 김동옥 구장본으로, 표지에 ‘丁亥丁月日造’라는 필사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에 다른 사람이 첨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필사시기로 볼 수 없다. 한편, 이 책의 제목을 ‘談郎與西州城主問答傳’이라 따로 적어놓았다. [6]은 김동옥 구장본으로, 『당태종전』과 합철되어 있다. 표제를 ‘古談囊傳’이라 썼고 내용을 필사해 놓았지만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만 필사했다. 지질이나 필사기를 통해서 1920년에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7]은 이화여대 소장본으로, 1925년에 필사되었고 지금까지 확인된 『고담낭전』 중에서 내용이 가장 자세하다. [8]은 인터넷 고서시장에서 확인한 자료이다. 제목과 내용의 일부만 알 수 있다. [9]는 『공자임훈교언행록』에 합철되어 있다. 지질이나 필사기를 통해서 1904년에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10]은 개인소장본으로, 현재 중구 산림동에서 영업했던 세책점의 대본(貸本)이다. 자료를 보면 1895년에 필사해서 사람들에게 대여해주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11]은 개인소장본으로, 제목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필사기가 없어 유통시기를 알 수 없다. [12]는 사재동 구장본으로 『금향정기』와 합철되어 있다. 정확한 필사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910년 이후에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⁶⁾ [13]은 인터넷 고서시장에 확인한 자료이다. 제목과 내용의 일부만 알 수 있다. [14], [15]는 개인 소장본으로, 조희웅이 간략한 서지사항과 필사시기를 밝힌 바 있다.

이상과 같이 15종의 『고담낭전』의 이본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소설은 형태 서지(書誌)사항 검토를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된다. 첫째, 필사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1890년대에 필사된 것, 1910년대에서

5) 장인수, 앞의 논문, 12쪽 참조.

6) 소장자가 자료를 입수한 시기, 원 소장자의 다른 작품에 기재된 필사기를 통해서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모두 1910년대 이상을 넘지 못한다.

1940년대 사이에 필사된 것으로 나뉜다. 둘째, 단독으로 작품이 존재하는지의 유무(有無) 또한 이 소설의 특징이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공부자동자문답』, 『향산별곡』에 합철된 것처럼 다른 작품과 함께 묶여서 전해지는 것도 있다. 셋째, 작품의 제목이 고담낭전, 담낭전, 답화서 등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형태 서지의 특징로 파악한 『고담낭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재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작품의 유통 시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이 소설의 생성 연대가 오래되지 않았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이 소설은 단독으로 존재하지만 『공부자동자문답』처럼 ‘공자(孔子)’와 연관된 소설, 『향산별곡』과 같은 가사류, 『당태종전』이나 『금향정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담낭전』에서 거론된 인물과 관련된 작품과 함께 합철되어 있다. 이는 『고담낭전』을 해당 작품의 방계(傍系) 작품으로 생각하거나 해당 작품을 의미 있게 읽기 위해서는 함께 필사해야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 소설 제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은 ‘고담낭전’이라 제목을 쓰고, 본문에서 “예 고즈를 쓰옵고, 일흠은 말슴 권쥬머니라 허여 담낭이라 허옵나이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소설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이본은 본문에서는 제목의 연원이 드러나지만 제목을 ‘담낭전’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소설의 원 제목은 ‘고담낭전’이고, 이후 ‘담낭전’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담낭전』의 형태 서지의 특성을 통해서 이본의 특성이나 유통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이 소설을 분류하는데 참조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특징을 참조하면서, 본문에 기술된 자구(字句)의 유사성, 공통 및 개별 서사단락의 비교 등을 통해서 이본의 특징과 계열을 구체화하기로 한다.

2. 『고담낭전』 이본의 계통(系統)

15종의 『고담낭전』 이본은 (1) 공통 및 개별 서사단락, (2) 본문의 기술된 자구(字句)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이본의 계통을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구분을 위해서 『고담낭전』에서 파악한 공통/개별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공통서사단락	개별서사단락	
①	고담낭이 살았던 시기, 가계(家系), 출생(出生)	①-1	시대적 배경의 차이
		①-2	부친 소개의 차이
		①-3	담낭 출생의 차이
②	고담낭과 태수(太守)의 만남 및 문답(問答)	②-1	문답 항목의 간략
		②-2	문답 항목의 상세
③	고담낭과 태수의 헤어짐	③-1	상금을 받고 헤어짐
		③-2	태수와 지혜겨루기 논쟁

『고담낭전』의 내용은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크게 ① 고담낭의 가계(家系)와 출생(出生), ② 고담낭과 태수(太守)와의 문답, ③ 고담낭과 태수와 헤어짐,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고담낭전』의 이본은 모두 공통 서사단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본에 따라서 특정 이본에서만 볼 수 있는 개별 서사단락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고담낭전』의 이본을 세 계통으로 묶어볼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해서 각 계열을 나누어 본다면 1계열은 [1], [10] 2종, 2계열은 [3], [4], [6], [8], [9], [11], [12], [13] 8종, 3계열은 [2], [5], [7] 3종이다.⁷⁾ 이렇게 구분한 이본은 본문에 서 기술한 자구(字句)까지 유사하다. 따라서 이 분류를 통해서 각 계열본의 유사성과 차이점, 특성 등을 살펴볼 수 있다.

1계열에 속한 이본은 [1], [10]이다. 1계열에 속한 이본의 특징은 시기적으로 1890년대 필사되었다는 점, 공통/개별서사단락이 일치한다는 점, 특히 자구(字句)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이다.

옛 시절의 한 스람이 있으니, 성은 고요 명은 전이라. 한 아들을 두었으니 총명영오호여 배우지 못한 글을 능통하고, 천지 조화를 알고 만물 화싱지도를 모를 것이 없으미 스람마다 칭찬 아니호리 없더라. ([1], 1장 앞면)

옛 원나라 말년의 한 사람이 잇스니, 성은 고요 명은 전이라 허는 사람이, 한 아드를 두었스니, 총명영오하야 빅오지 못한 그를 능통하고, 천지 조화 싱〰지를 와 만물 화싱지도를 모를 거시 업스미, 스람마다 칭찬 아니허 리 업셔라. 고정 아들이 나히 팔구 세에 천문 지리와 고금 사적을 다 알기로 별호를 ‘담낭’이라 허더라. ([10], 1장 앞면)

1계열에 속한 이본은 〈예문〉처럼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원나라’, ‘옛 시절’로 시대적 배경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자구가 대부분 일치한다. 그리고 1계열에 속한 이본의 내용을 보면 ‘태수와 담낭 간의 질문과 대답’이 단순하며, 특히 담낭의 태수의 질문에 대답 과정에서 제시하는 역대 제왕과 현인(賢人), 영웅(英雄)들이 1~2명으로 짧막하게 기술되어 있다. 1계열에 속한 이본의 가장 큰 특징은 『고담낭전』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담낭과 태수가 벌이는 ‘지혜 겨루기’가 없다는 점이다.⁸⁾ 이러한 1계열에 속한 이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본은 [12]이다.

2계열에 속한 이본은 [3], [4], [6], [8], [9], [11], [12], [13]이다. 2계열에 속한 이본의 특징은 시기적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필사 시기가 다양하다는 점, 공통/개별서사단락이 일치한다는 점,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시대적 배경이 ‘석자(昔者)’, ‘백제(百濟)’처럼 차이가 있지만 본문에 기술된 자구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이다.

석조의 고전나라 하난 스람이 잇서 한 아달을 두었스니 그 일홈은 담낭이라. 낭이 즈라나미 총명이

7) [14]와 [15]는 조희웅이 밝힌 자료의 서지사항을 반영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이 이본의 실본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논의에서 제외한다.

8) 앞에서 제시한 이문호, 장인수, 조도현의 논문을 보면 모두 이 내용을 『담낭전』의 특징으로 거론하고 있다.

가중 영민하여 각별 비호지 안인 글을 능이 알미 사람마다...(중략)...충춘 하더라. ([4], 1장 앞면)

빅제 적의 고전이란 스람이 일조를 두어시니 일흠은 답낭이라. 낭이 즈람에 총명이 가중 영민하여 각별 비호지 아닌 글을 능이 알미 사람마다...(중략)...칭찬 하더라. ([3], 1장 앞면)

예적의 고전이란 하난 스름이 잇쓰되 한 아들을 나혼디 일흠을 답낭이라 하다. 십세 전에 총명이 유여하여 각별 비호지 아닌 말과 고담을 너비 아라 스름마다...(중략)...칭찬 하더라. ([6], 1장 앞면)

2계열에 속한 이본은 <예문>처럼 자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한다. 2계열에 속한 이본은 태수와 답낭 간의 질문과 대답, 역대 제왕과 현인(賢人), 영웅(英雄)들에 대한 서술 부분에서 1계열에 보다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1계열에 속한 이본은 역대 영웅을 언급할 때 1~2명만 제시되지만 2계열에 속한 이본은 이보다 두세 배가 많게 기술했다. 2계열에 속한 이본은 1계열에 속한 이본과 마찬가지로, 『고담낭전』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답랑과 태수의 ‘지혜 겨루기’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2계열에 속한 이본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작품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자동자문답』, 『공자임훈교언행록』, 『향산별곡』, 『금향정기』, 『당태종전』과 같은 작품에 합철되어 전한다는 점이다. 『공부자동자문답』, 『공자임훈교언행록』에는 ‘공자’, 『금향정기』, 『당태종전』에서는 『고담낭전』에서 거론되는 ‘명왕(名王)’, ‘무도(無道)’, ‘천하일색(天下一色)’ 등이 등장한다. 『고담낭전』이 이 작품들과 합철된 이유는 이러한 연관성이 있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계열에 속한 이본 중에서, 이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2]이다.

마지막으로 3계열에 속한 이본을 살펴본다. 3계열에 속한 이본은 [2], [5], [7]이다. 3계열에 속한 이본의 특징은 시기적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필사 시기가 다양하다는 점, 공통/개별서사단락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통/개별서사단락만 동일할 뿐, 시작부분의 시대적 배경도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본문의 자구 또한 서로 차이가 있다.

벋적 공정이라 하는 사람이 잇스니 즈식이 업서 답랑산이라 하는 산에 비러 혼 아달을 나오니 인 하야 일흠을 답랑이라 하다. 나며 총명하여 통치 못홀 글이 업고...(후략)... ([2], 1장 앞면)

디명 말의 셔쥬 제임면 한 스람 이시되 셔명 고전니...(중략)...중연의 한 아들을 나흐니 얼골이 관 옥겅고 거동이 비범하더라. 일흠을 답낭이라 하던이 점〃 즈라미 총명이 영오하여...(후략)... ([5], 1장 앞면)

디송 정화년간에 하람 짜에 혼 도인이 잇스되 성은 고씨요 일흠은 성도라. 년장 칠십에 남자를 나흐니 그 아히 나히 팔세되미 구변은 소진 갖고 총명은 관노 갖고 디혜는 안연 갖티야 일남 력기하고 문일 디십하여...(중략)...일흠을 답낭이라 하엿더니...(후략)... ([7], 1장 앞면)

3계열에 속한 이본은 <예문>처럼 시작부분의 시대적 배경부터 ‘옛적, 송, 명’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구와 본문의 내용 기술 방식도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개별 세부 서사단락의 내용은 서로 일치한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3계열에 속한 이본의 가장 큰 특징은 고담낭과 태수 간의 질문과 답변이 풍부하고 자세하며, 태수가 고담낭을 자신의 사위로 삼아 ‘지혜를 겨루는 이야기’가 있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자들이 『고담낭전』의 특징을 담랑과 태수의 ‘지혜 겨루기’라고 한 것은 바로 3계열에 속한 이본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3계열 속한 이본 중에서, 이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7]이다.

위와 같이 『고담낭전』의 이본군(異本群)을 1계열, 2계열, 3계열, 셋으로 구분해 보았다. 각 이본의 계열은 1계열에서 2계열과 비교할 때, 2계열과 3계열로 비교할 때, 내용의 서사적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인공 ‘담낭’의 문답에서 역대(歷代) 세상(世上) 만물의 근원에 대한 기본 지식, 성제(聖帝), 명황(名皇), 효자(孝子), 충신(忠臣) 등의 고사(古事)가 자세하고 충실하게 기술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개별 세부 단락이 자세하고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본 계통에서의 서사적 특징과 경향은 Ⅲ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고담낭전』 계통별 이본의 서사적 지향과 특징

앞서 『고담낭전』의 이본군(異本群)을 1계열, 2계열, 3계열, 셋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렇게 구분한 『고담낭전』은 이본의 계통마다 서사적 지향점이 뚜렷하고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이제 각 계열별로 그 경향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1계열 이본의 서사적 지향과 특징: 절대 지식과 실용 지식의 체계화

1계열에 속한 이본은 2계열, 3계열 이본과 비교해 볼 때 공통 서사단락이 같다. 그러나 내용의 대부분은 ‘담낭과 태수’가 주고받는 문답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혜 겨루기’와 같은 개별 서사단락은 없다.

본문을 보면 대성인(大聖人)인 공자(孔子)에서부터 성제명왕, 효자, 충신, 영웅, 호걸, 장사, 문장가, 협객, 반역자, 도술, 상법, 술법, 병법, 도술, 상법, 음률, 지지술, 복술, 의술, 잡술, 명필, 일색(一色), 요색(妖色), 천지음양(天地陰陽), 만물지리(萬物之利), 하늘과 땅의 크기, 일월과 사시사철의 장단(長短), 물의 크기, 이목 구비, 오장육부, 쥐가 발가락이 여섯인 이유, 닭이 날지 못하는 이유, 소가 경작을 잘하는 이유, 말이 잘 뛰는 이유, 연못의 물고기 존재의 유무, 나무뿌리 존재의 유무, 사람의 선불선(善不善), 임금의 선불치(善不治), 관원의 선불치(善不治), 일월 순행지리(順行之利), 천지두미(天地頭尾), 사람의 생사(生死), 자식의 유무(有無)까지 43개 항목을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은 역대 사적(事跡)과 고사(古事)에서 나오는 위인(偉人)과 악인(惡人), 자연(自然)의 이치, 정치(政治)의 원리, 인간사(人間事)의 이치(理致)를 정리한 것이다. 본문의 기술 방식은 태수가 궁금해 하는 것을

담낭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두 사람의 대화로 처리로 하고 있지만, 당대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절대 지식’⁹⁾과 ‘실용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문을 보면 ‘자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자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계열에 속한 이본은 『고담낭전』 이본 중에서 필사 시기가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다. 따라서 이 계열의 이본을 통해서, 『고담낭전』의 연원과 생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1계열의 이본은 모두 세책점(費冊店)에서 사람들에게 대여해주던 세책본이거나 이를 저본으로 필사한 본이다.

세책점에서 이 책을 만든 목적은 본문 마지막의 언급에서 볼 수 있다. 해당 대목을 보면 “그런고로 이 책을 명심하여 보면 세상 만물과 성제 명황과 효제 충신과 천지 조화를 알 듯 하니라”라고 되어 있다. 즉, 『고담낭전』의 제작 목적을 “당대 사람들에게 사람이 알아야 할 절대 지식과 실용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언급을 토대로 이 책의 연원(淵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담낭전』은 세책점에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쉽게 이해시키고 전달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2. 2계열 이본의 서사적 지향과 특징: 절대 지식과 실용 지식의 정비

2계열에 속한 이본은 1계열본과 비교해 볼 때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계열에 속한 이본은 1계열에 속한 이본처럼 ‘담낭과 태수’의 주고받는 문답이 내용 전체를 차지한다. 그러나 2계열에 속한 이본은 1계열본에서 볼 수 있는 항목이 제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항목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1계열본 보다 자세하게 기술되었고, 각 항목에서 거론하는 인물의 숫자도 2~3배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본문은 1계열본과 마찬가지로 대성인(大聖人)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성제, 명왕, 효자, 열사, 영웅, 호걸. 장사, 협객, 번사, 소인, 역적, 도술, 술법, 검술, 지혜, 기량, 병법, 음술, 의술, 잡술, 명주, 무도, 천하일색, 정치, 사시윤회, 하늘과 땅의 기원, 사람의 생사 여탈, 자식의 유무(有無)까지 29개 항목을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은 1계열본과 마찬가지로 역대 사적과 고사에서 나오는 위인(偉人)과 악인(惡人), 자연(自然)의 이치, 정치(政治)의 원리, 인간사(人間事)의 이치(理致)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1계열본과 달리 항목이 늘어나고 특히 농리(農利), 부귀빈천(富貴貧賤), 자식 키우기와 같은 ‘실용지식’의 보다 자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1계열본에서 볼 수 있었던 수수께끼와 같은 것들은 모두 없었다. 그러나 2계열본에서도 1계열본과 마찬가지로 ‘지혜 겨루기’와 같은 특정 대목은 없다.

한편, 2계열의 이본은 주로 『고담낭전』 단독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공부자동자문답』, 『공자임훈교언행록』, 『향산별곡』, 『금향정기』, 『당태종전』과 같은 작품에 합철되어 전한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부자동자문답』, 『공자임훈교언행록』에는 ‘공자’, 『금향정기』, 『당태종전』에서는 『고담낭전』에서 거론되는

9) 이 글에서 사용한 ‘절대지식’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삶의 가치와 관련 지식을 전반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 ‘보편적 지식’, ‘교양’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찰스 밴 도렌(저), 박중서(역), 『지식의 역사』, 갈라파고스, 2010 참조.

‘명왕(名王)’, ‘무도(無道)’, ‘천하일색(天下一色)’ 등이 등장한다. 『고담낭전』이 합철된 것은 이러한 연관성이 있어서 함께 필사하여 합철한 것으로 보인다.

2계열에 속한 이본은 대부분 필사 시기가 1계열 이본 후에 필사된 것들이다. 이를 2계열본의 생성과 연관이 지어 본다면 2계열에 속한 이본은 1계열의 이본이 나온 뒤에, 1계열본에서 미흡한 내용, 보완해야 할 내용은 자세히 기술하고, 수수께끼처럼 내용 전개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삭제한 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계열에 속한 이본은 1계열본에서의 제시한 절대 지식과 실용 지식의 난삽함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이본이다.

3. 3계열 이본의 서사적 지향과 특징: 절대 지식과 실용 지식의 확장, 고소설 서사문법의 차용과 강화

3계열에 속한 이본은 1~2계열에 속한 이본들과 비교할 때, ‘담낭과 태수’의 주고받는 문답이 내용이 자세하고, 『고담낭전』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담낭과 태수의 지혜 겨루기’를 볼 수 있다.

본문은 1~2계열에 속한 이본과 마찬가지로 대성인(大聖人) ‘공자’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명왕, 효자, 충신, 영웅, 호걸, 장사, 문장, 명필, 협객, 구변, 소인, 난신, 도술, 지혜, 의량, 궁술, 병술, 검술, 아성, 현인, 농리(農利), 의술, 점술, 화공, 음술(音術), 가무, 도술(잡술), 복술(卜術), 신선, 남중절색, 화초, 수목, 주수(走獸), 폭군, 현군, 현부, 요부, 천하절색, 성군, 암주(暗主), 명관, 탐관, 가도 창성하는 집, 패가망신하는 집, 천지일월 순행, 사시순회법, 풍운조화법, 인간 탄생, 수요장단(壽夭長短), 부귀빈천, 유자(有子)와 무자(無子), 어린 자식과 장성한 자식이 정해진 이치, 천지조화지법의 사적까지 53개 항목으로 내용이 대폭 확장되었다.

아울러 3계열에 속한 이본은 1~2계열에 속한 이본에서 볼 수 없었던 고담낭의 가계와 출생담이 자세하게 기술되고, 고담낭과 태수가 헤어지는 대목에서 태수가 고담낭을 자신의 사위로 삼아 ‘지혜를 겨루는 이야기’가 추가되었다. 주목할 점은 3계열에 속한 이본에서의 기술이 고소설의 일반적인 형식, 문법을 충분히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1~2계열에 속한 이본은 보통 담낭과 태수의 문답에만 집중하고 있어 온전한 고소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¹⁰⁾ 그러나 3계열에 속한 이본은 서두부터 고소설의 서사문법인 ‘주인공의 부(父), 가계(家系), 주인공의 탄생과 관련된 신이담(神異談)’을 3계열의 이본은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¹¹⁾ 그리고 본문에서도 담낭과 태수가 주고받는 문답을 보면 단순히 문답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두 인물이 ‘갈등’에까지 이르렀다가 ‘화해’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3계열에 속한 이본은 1~2계열의 이본에서 볼 수 없었던 고소설 ‘서사문법’에 비교적 충실한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10) 선행 연구자들이 이 작품을 평가할 때 고소설 갈래라고 보았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11) 황배강, 『조선왕조소설연구』, 단국대 출판부, 1986; 강재철, 『권선징악 이론의 전통과 고소설의 비평적 성찰』, 단국대 출판부, 2012.

한편, 3계열에 속한 『고담낭전』은 대부분 필사 시기가 1~2계열 보다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담낭전』은 『공부자동자문답』의 방계(傍系)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세책(貰冊)’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소설이 유행하면서 다른 작품과 합철되어 전해지거나 필사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고담낭전』의 이본은 답낭과 태수의 문답 장면만이 아니라 고소설의 서사문법인 ‘주인공의 부(父), 가계(家系), 주인공의 탄생과 관련된 신이담(神異談)’을 충실하게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고담낭전』은 초기에는 고소설에서 거리가 먼 두 인물의 문답을 기술한 작품이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고소설의 ‘서사문법’을 충실히 따르고, 온전한 고소설로 변모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고담낭전』 연구의 핵심은 이 소설의 연원, 창작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기존 논의는 소설의 내용에만 주목하여, ‘설화의 소설화 과정’, ‘민담의 수용과 변용’, ‘문답 양식의 차용’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1~3계열의 이본을 보면 처음부터 이 작품은 세책점에서 ‘역대(歷代) 세상 만물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고, 성제(聖帝), 명황(名皇), 효자(孝子), 충신(忠臣) 등의 고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만 기술한 것이 아니라 당대인들에게 친숙한 소설, 고소설의 충실한 서사문법의 가미되면서 ‘소년이 어른과 지혜 겨루기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온전한 내용을 전달하는 한 편의 소설이 된 것이다. 따라서 『고담낭전』의 성격과 의미, 서사적 특성은 설화의 소설화 과정, 민담의 수용과 변용, 문답 양식의 차용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와도 연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이, 『고담낭전』의 다양한 이본을 검토하여 이 소설의 계통을 밝히고, 각 이본의 계통에서 확인한 대표본을 통해서 이 작품이 지향하는 서사적 특성,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논의는 한정된 『고담낭전』 이본을 대상으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한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전하는 15여 종을 검토하여 『고담낭전』 이본을 3계열로 구분했다.

『고담낭전』의 이본은 1계열, 2계열, 3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본의 계열은 1계열에서 2계열, 2계열에서 3계열로 갈수록 내용의 서사적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연이 두드러지고 개별 세부 단락이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즉, 주인공 ‘답낭’의 문답에서 역대(歷代) 세상(世上) 만물의 근원에 대한 기본 지식, 성제(聖帝), 명황(名皇), 효자(孝子), 충신(忠臣) 등의 고사(古事)가 자세하고 충실하게 기술하였다.

『고담낭전』의 주된 관심은 이 소설의 연원(淵源)이었다. 기존 논의를 보면 대부분 이 소설의 내용에 주목하여, 이 문제를 ‘설화(說話)의 소설화 과정’, ‘민담(民譚)의 수용과 변용’, ‘문답(問答) 양식의 차용’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 소설의 유통 과정을 보면 세책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다. 즉 『고담낭전』은 세책본으로 처음 만들어진 뒤에, 유사한 작품 뒤에 합철되었고, 후대로 갈수록 고소설의 면모

를 갖추게 된 작품이다. 따라서 『고담낭전』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품의 일련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가 있다. 바로 『공부자문답』과 『고담낭전』과의 관계이다. 『고담낭전』은 공자의 전기물에 편입된 작품, 또는 이 작품의 파생작 내지는 후대적 계승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 이유는 『공부자문답』에 『고담낭전』이 합철되어 전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두 작품의 영향 관계, 유통과 전승의 문제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후속 과제로 넘긴다.

〈참고문헌〉

- 강재철, 『권선징악 이론의 전통과 고소설의 비평적 성찰』, 단국대 출판부, 2012.
 엄태웅, 「〈공자동자문답〉 계열의 파생작 〈대성훈몽전〉」, 『고전과 해석』 25,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유춘동, 「한글연행록의 수집 현황과 활용 방안」, 『열상고전연구』 50, 열상고전연구회, 2016.
 윤주필, 「〈공자동자문답〉의 동아시아적 전개 비교론」,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연구학회, 2014.
 이문호, 『담낭전 연구』, 이화여대 국문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장인수, 『담낭전 연구』, 한국 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조도현, 「담낭전의 문학적 특질과 의의」, 『인문학연구』 96, 충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14.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 (상), 박이정, 2006.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 사전』 11, 지만지, 2017.
 찰스 밴 도렌(저), 박중서(역), 『지식의 역사』, 갈라파고스, 2010.
 황패강, 『조선왕조소설연구』, 단국대 출판부, 1986.

* 이 논문은 2019년 8월 23일에 투고되어,
 2019년 9월 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10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0월 28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GodamNangjeon*

Yoo, ChoonDo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various versions of *GodamNangjeon* to clarify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is novel and to examine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is work.

GodamNangjeon is known as a novel about the boy's victory, when a boy 'DamNang(談囊)' exchanges an adult 'Taesu(太守)' and a 'wise wisdom contest'. So, in order to clarify, the researchers tried to identify the formation process, structure and meaning, and stylistic features of the novel.

However, the existing discussion is problematic because it is the result of reviewing a limited set of variants. As of now, there are 15 kinds of *GodamNangjeon*. This data confirms that *GodamNangjeon* is divided into three lines, and that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differ according to the lines.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to identify the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of this novel. The researchers sought to find this problem in the borrowing of tales, folk tales, and questions and answers. However, the novel was divided into three books, *Dispute between Confucius and a Child*, and one with unique contents. The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of *GodamNangjeon* should be linked to the Different version to reveal the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work.

[Key Words] GodamNangjeon, Dispute between Confucius and a Child, the origin, narrativ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sechaek(賞冊)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 Culture Contents, Sunmoon University